

새로운 전통문화도량 佛都 부산에 '우뚝'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11일 새법당 준공... 1만 대중 참석

한국 최고의 장인들이 혼신의 노력으로 일궈낸 새로운 전통문화도량이, 불도(佛都) 부산에 우뚝 섰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11월 11일 새법당 준공법회를 열고 부산 불교를 이끌 진리의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범어사 경학원장 무비 스님을 비롯해 부산불교연합회 수불, 조계종 부산불교연합회장 수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원 스님 등 사부대중 1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선불교 미래 밝히는 도량되길"

해 대행 스님은 생전 영상 법문에서 "오늘 이 불사에 중국에 생각하면 내 집이다. 내 집을 짓는 데 무슨 좋고 나쁨을 평가하겠는가"라며 "불사마저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알았다면 이 모든 것은 공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증명법사로 나선 무비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법당은 대행 스님이 가르쳤던 '참생명 자리'다. 이를 바로 살필 수 있어야 바로 '한마음선원'에 온 것"이라며 "이를 알지 못한다면 최고의 법당도 의미가 없다. 부처님 인연은 소중하다. 귀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설했다.

한마음 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원 스님은 대행 스님의 원력이 깃든 부산지원 새법당 준공 불사에 참여한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컸다. 모든 인연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다"고 밝혔다.

부산 지원장 혜도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한마음 자리에서 자성불의 진리를 깨우치는 도량으로 바로서길 바란다"며 "안으로 깊어지고 깊어져 부처님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지역 스님과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은 "한국불교, 부산불교는 시대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25주년을 맞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세세상생 불법을 전하는 도량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부산불교연합회장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은 "거룩한 성전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수행자와 신행자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오늘 세워진 이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수행자와 신행자로 장엄되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이와 함께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석조 부산시의회의장은 "현대 불교 건축사의 걸작으로 평가 받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한국 선불교의 내일 밝히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도 정갑순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축전을 전하기도 했다.

현대 불교 건축사에 남을 걸작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이번 불사는 11년을 이어온 대작이다. 백두대간 끝자리에 자리한 봉래산을 등지고 자리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9,125㎡(약 2,706평)의 대지에 건축면적 1,469㎡(약 445평), 연면적 4,907㎡(약 1,478평)의 규모를 자랑한다.

전각 구성은 108평의 대웅전과 그 앞에 좌우로 요사채(심해당)와 선실(연복당), 보향루로 이뤄져 있으며, 대부분의 건물은 목조로 지어졌다.

이번 불사에서 가장 눈을 띄는 것은 이 시대의 명장들이 참여한 대웅전이다. 해풍을 견디기 위해 목조 건축을 결정한 만큼 뛰어난 솜씨를 가진 명인들이 필요했다. 가장 먼저 대행 스님과의 인연이 깊은 중요무형문화재 74호 최기영 대목장이 도편수로

108평에 외11포 내13포, 국내 유일

시대의 명장 7명 원력 다해

한국 16국사·16선사 목탱화에

요사채, 선당, 보향루 등 11년 불사

해수 관음상·도량담 남은 과제

"대행 스님 가르침 되새겨

내면 불사 이어 갈 것" 발언

합류했으며, 주불 석가모니불은 목아 박찬수 조각장이, 후불 목탱화는 문화재 기능보유자인 청원 스님이 맡았다.

기와는 중요문화재인 이근복 번외장이, 솜칠은 정수화 칠장이 단청을 김성규 단청장이, 외부 벽화는 이연옥 화백이 참여했다.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명장들이 이번 불사에 참여해 대웅전 법당을 자신의 작품으로 장엄한 것이다.

부산지원 대웅전은 조선시대 다포기법으로 전면 7칸, 측면 4칸의 외11포, 내13포 오랑 내외 5포 5층목 팔작집 목조건축물이다. 외11포 내13포의 다포양식에 4개의 박공을 얹은 형태를 목조로 올리고, 그 지붕 위에 5t이나 되는 우주담(원담)을 떠 받치는 형식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조차 보기 드문 건물로 꼽힌다.

고주, 추녀 등 일부에 쓰인 북양육송을 제외하면 모두 경북과 강원도의 육송만 사용했다. 건물을 지으며 12,230여 개의 결구가 사용·부착됐으나 어디 하나 절단해 못을 사용한 것 없이 전통 기법 그대로 시공됐다.

이에 대해 이상문 부편수는 "108평에 외11포, 내 13포 규모의 건물을 지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다. 하지만 작업에 들어가니 중심포부터 하나도 여긔남이 없었다"며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집을 짓고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항상 대행 스님의 원력과 보살핌이라고 생각한다"고 술회했다.

목아 박찬수 명장이 조성한 주불 석가모니불은 개금 방식이 특징이다. 국내 유일 칠장인 정수화 명장이 개금한 석가모니불은 9년 이상 옷칠을 하고 개금해 불에 굽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조성된 불상의 개금은 반영구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한마음선원 특유의 목탱화에는 일반적인 나한과 10대 제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16국사와 16선사가 자리하고 있다. 천정에는 33조사가, 외벽에는 심우도, 부처님 본생담 이외에도 대행 스님의 부산법회 장면, 산중 수행 장면, 치약산 견성암 등 대행 스님의 포교 원력과 수행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벽화가 조성됐다.

이근복 번외장이 작업한 기와도 대웅전 불사를 여법하게 한 요인이다. 외 11포, 내 13포까지 올라간 처마로 대웅전 지붕이 높아져 와공들의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총 41,500장의 대와(大瓦)를 통해 불사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 같이 대행 스님의 생전에 다져진 원력과 쫓겨 쫓인 인연 공덕은 부산 지원 대웅전 불사를 통해 여법히 회향한 것이다.

아직 계속되는 불사의 현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불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향후 법당으로 오르는 좌우 계단에 8대 보살을 조각해 넣는 일과 법당 마당에 도량담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해수관음보살상 봉안과 연못을 만드는 일 등의 도량 정비가 남아있다. 이 모든 게 대행 스님이 생전에 계획해 놓은 유지들이다.

이와 함께 1879년 개원 당시 기존 법당은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인근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문화공간과 신도들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부산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 참나를 찾아가는 마음공부 프로그램, 어린이 법회, 부모법회와 지지체 등과 연계한 템플스테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도량불사를 진행해 왔지만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불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기워가는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불사에 임해왔다"며 "법당 불사를 회향했지만 앞으로 더욱 정진해 내면의 불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부산=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11월 11일 준공법회를 통해 위용을 드러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전. 해풍을 이기기 위해 목조로 지어진 부산지원의 대웅전은 시대의 명장들이 참여한 예술품이기도 하다.



대웅전 처마 모습. 대웅전 지붕은 외11, 내13포다 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4만여 개의 대와가 사용됐다.



준공법회에는 지역 주요 사찰 주지 스님과 내외빈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대웅전 중앙불단의 모습. 문화재 기능 보유자 청원 스님이 조성했다. 중앙불단은 나한과 10대 제자 이외에도 16국사, 16선사가 함께 조성된 게 특징이다.



이날 법회에서는 대행 스님의 생전 영상법문도 상영됐다. 스님은 "불사 마저도 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불사에 참여한 명장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는 지역 소외계층 겨울 나기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부산지원은 11년 간의 불사를 통해 현재의 여법한 사격을 완성했다.

“11년 불사, 제게는 수행이었습니다”

인터뷰 -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2001년 가진 기공식 이후 11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사진)은 만감이 교차했다. 대행 스님의 원력과 유지를 받들어 이어나간 불사가 이제야 회향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긴 불사에 지치고 힘들었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마음자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수행이었다고 스님은 술회했다.

“대행 스님께서 세우신 원력이었고, 저는 이를 잘 받들어 이어가야 할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11년 불사를 하면서 왜 부침이 없었습니까? 부침이 왜 때때로 스님의 가르침을 생각했습니다. 한 생각 안에 극락도 지옥도 있습니다. 한 순간 생각을 돌이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이죠.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11년의 불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번 불사는 저에게는 마음 수행이었습니다.”

대행 스님의 원력을 이어가는 불사였지만,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 최기영 대목장, 목아 박찬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인간 문화재들을 한 곳에 모으기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에 대해 혜도 스님은 “자신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겸양의 말을 이어갔다.

큰 원력 따르니 불사 이뤄져 “마지막까지 마음 정진할 것”

“스님의 원력과 인연을 따르니 자연스레 이뤄진 일입니다. 제가 했던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해풍이 심해 목조 건물로 만들고자 했더니 최기영 대목장을 만났고, 스님의 원력으로 목아 박찬수 선생이 불상을 제작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이어갈 개금 불사를 생각하니 정수화 칠

장을 만났습니다. 11년 대작 불사를 이끌어 온 것은 제가 아니라 스님의 크신 원력과 인연의 힘입니다.”

향후, 스님은 해수관음상 봉안과 도량담과 연못 조성 등 마무리 불사에 매진할 계획이다. “진리를 갈구하는 모든 생명들이 이 도량에 들어 일체 무명을 거두고 밝음에 드는 그날까지 안주하지 않고 마음의 불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종일 기자

“내 마지막 원력을 담아냈습니다”

인터뷰 - 불사 총감독 진행한 최기영 대목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새법당 불사의 하이라이트는 대웅전이다. 외11포, 내13포에 108평의 웅장한 대웅전의 자태를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불사를 총지휘한 사람이 바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74호 최기영 대목장(사진)이다.

오대산 상원사에서 탄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최 대목장은 당시 대행 스님을 만나 인연을 키웠다. 나무 향기가 좋아 목수가 된 후에도 스승 김덕기 선생을 따라 사찰 불사를 하면서도 대행 스님과의 인연의 끈은 이어졌다.

“대행 스님께서 수행하셨던 토굴이 치악산 상원사 아래에 있었는데 상원사 복원을 저와 스승이 했습니다. 그때도 종종 찾아뵙곤 했죠. 환속해 목수가 된다고 했을 때에도 대행 스님께서 고생 많이 한다고 만류했습니다. 스님의 은혜는 제가 집 한 채 짓는 것으로는 모자릅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전 불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도 대행 스님과의 인연 공덕을 이제야 세상에 회향할 수 있게 됐다고 최 대목장은 술회했다.

“제가 대행 스님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전의 불사를 의뢰받았을 때, 이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장 혜

대행 스님과의 인연 '각별' 가르침 생각하며 11년 불사

도 스님에게도 '이 불사는 다른 누구에게도 못 준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장장 11년의 대작불사. 한국 사찰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도량을 만든 최 대목장에게 이번 불사는 42년 목수 생활의 모든 실력을 담아낸 역작이다. 그래서 이번 불사 회향이 최 대목장에게는 뿌듯함

과 아쉬움으로 함께 다가온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전은 제 목수 인생의 모든 원력을 담아낸 역작입니다. 좀 더 크고 좋은 나무로 부처님 도량을 장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도 불사가 완성되는 오늘은 제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대행 스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이 천년을 이어가는 도량이 되길 기원합니다.” 신종일 기자